

78. 결혼의 관계... 와서 너희들의 영혼의 평화와 휴식을 찾아라.

2015.05.14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찬양하는 동안에 저는 주님을 다시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였고 주님의 임재의 달콤함은 저의 작은 마음을 사랑의 불꽃과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휘저었어요.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가 하였다면 저의 마음은 무관심하였을 것이지만, 주님과 가까워지면 저의 마음은 불이 붙어요.

오늘 밤 주님은 흰색 셔츠를 입으시고 소매를 걷고 계셨고 심지어 저는 주님의 팔에 있는 털들도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의 얼굴은 보통때에는 보기가 조금 더 어렵지만, 제가 주님께 선명하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더 오래 함께 할 수록 주님의 얼굴이 더 선명해져요. 문제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욱 압도되어지고 주님과 분리되어질때에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매우 천천히 춤을 추고 있을때, 주님께서 머리를 아래로 기울이셨고 저희는 서로의 이마가 거의 닿았어요. 저는 주님의 가슴에서 불이 뿜어져나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였고, 제가 그것을 바라보았을때 그것은 가장 강렬한 불로 타오르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문이 되었어요. 제가 강철을 만드는 제련공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은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었고, 제가 더 볼 수록 점점더 커져서 온 우주를 덮을정도로 번쩍거렸고, 저는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묶으신 주님의 사랑의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요한복음1장1~4절에 기록되어있는 것처럼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의 마음에서 빛의 폭발처럼 나타났고, 창조물들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지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분이 제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진정한 신이에요. 하지만 왜 주님은 저희와 이 부드러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비록 우주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묶여있지만,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부관계, 즉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사랑을 경험한 곳은 바로 이곳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저희들에게 드러내기로 선택하셨어요. 말씀은 육신이 되고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요.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이고, 이 열망을 통해서 저희를 주님의 신부들로 가지기 위해서예요. 저희 각각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저희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에서 저희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갈망하시는 주님의 매우 부드럽고 언제나 현존하는 사랑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화시키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동반자 관계를 갈망하세요. 구원에서 저희들의 역할은 영혼들에게 십자가로 완성된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를 가져다주는 것이예요.

(예수님) 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오, 내가 너희들의 삶에 참여하고, 너희들의 안에 살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내가 너희들의 뜻에 의해 의식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살면서 너희들의 창조주만을 위해 만들어진 그 갈망의 공간을 내가 채우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렇게 하여 너희들은 완성이 되고, 나는 모든 선물들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아. 하나의 창조물이 창조된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한 거처로 선택하여 감사를 돌리고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뛰어넘는 나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자녀들아, 나는 연인으로써 너희들에게 다가가.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오직 하나로써 얼마나 강렬하게 너희들의 삶에 들어가고 싶어하는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야. 내가 아담을 위해 적절한 파트너인 이브를 창조할때에도 나는 또한 너희들과 나 사이에서 내가 갈망하는 결합을 보여주고 있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평생동안 헌신할 필요가 없이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너희들은 동물과 매우 비슷하였을 거야. 하지만 대신에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결합하고 너희들의 삶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슬픔을 너희들의 삶에서 공유하고 창조된 만물을 초월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기대어 우리가 함께 자손을 낳기를 바라면서 그 선택을 하였어.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야. 너희들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필요한 거야. 이것이 여기 지구에서 나와 너희들의 결합의 정도에 따라 천국에서 있게 될 방법이야.

만약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려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었다면, 천국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답을 수 있는 나의 모든것을 가지게 될 거야. 나보다 지구의 것들을 붙잡고 사랑한다면 천국에서 너희들의 위치는 좋겠지만 지구에서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 영광의 정도가 제한될 거야.

인간의 지성의 차원을 넘어서지 않고는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이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희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는 너희들의 양심 속에 나에게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줘. 너희들이 나와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점점 더 너희들은 나의 것이 되고 나는 점점더 너희들의 것이 되. 그리고 나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너희들에 대한 나의 임재는 줄어들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하게 나를 경험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경험할 수 있어. 이것은 신비야.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되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 대가로 나도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를 알게될 거야.

이제 나의 품으로 오고 너희들의 끝없는 의심을 멈춰라.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씻을 평화의 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혼의 안식을 찾을 거야.